

 보건복지부 질병관리본부		보 도 참 고 자 료		
배 포 일		2018.4.24. (총 9매)		
질병관리본부	감염병감시과	과 장	박 혜 경	043-719-7160
		담당자	서 총 원	043-719-7168
	바이러스분석과	과 장	강 춘	043-719-8190
		담당자	최 우 영	043-719-8191
	매개체분석과	과 장	조 신 형	043-719-8520
		담당자	이 희 일	043-719-8561
충청남도	보건정책과	과 장	조 광 희	041-635-2640
		담당자	유 현 균	041-635-4305

야외활동시 진드기 매개감염병 주의 철저 당부

- 4월 20일 충남지역에서 중증열성혈소판감소증후군(SFTS) 첫 사망자 발생 -

- ◇ 중증열성혈소판감소증후군(SFTS) 예방의 최선은 진드기에 물리지 않는 것
- ◇ 야외활동시 긴 옷 착용, 외출 후 목욕하고 옷 갈아입기
- ◇ 야외활동 후 2주 내 고열, 구토 등의 임상증상 발생 시 즉시 의료기관 방문하여 진료받기
- * 연도별 사망자수 : 17명('13)→16명('14)→21명('15)→19명('16)→54명('17, 잠정 통계)

□ 질병관리본부(본부장 정은경)는 4월 20일 충남지역에서 올해 첫 번째로 '중증열성혈소판감소증후군(Severe Fever with thrombocytopenia Syndrome; SFTS)' 사망환자가 보고됨에 따라 진드기 매개 감염병인 SFTS에 대한 주의를 철저히 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 충청남도 청양군에 거주하는 A씨(여자, 만 62세)는 4월 13일 발열 및 설사 증상으로 4월 15일 병원 응급실에서 대증치료를 받던 중, 증상이 호전되지 않아 16일 대학병원으로 전원 후 중환자실에서 치료받았으나 4월 20일 21시경 사망(패혈증 쇼크, 간기능 상승, 백혈구 감소, 혈소판 감소)하였다.

- * A씨는 증상 발생 전 밭농사, 고사리 채취, 나물 캐기 등의 야외 활동을 하였음
- * 4월 19일(목) 충남보건환경연구원 유전자 검사 결과 양성 판정

- SFTS는 주로 4~11월에 SFTS 바이러스를 보유한 참진드기(주로 작은소피참진드기)에 물린 후 고열(38-40℃), 소화기증상(오심, 구토, 설사) 등을 나타내는 감염병으로 '13년 이후 환자는 607명이었고, 이중 사망자는 127명으로 확인되었다. (붙임1, 2 참조)

* 환자수 : 36명('13)→55명('14)→79명('15)→165명('16)→272명('17, 잠정통계)

* 사망자수 : 17명('13)→16명('14)→21명('15)→19명('16)→54명('17, 잠정통계)



작은소피참진드기

암컷, 수컷, 약충, 유충 순서(눈금한칸: 1mm)



머리에 붙어 흡혈하고 있는

작은소피참진드기

< SFTS를 매개하는 작은소피참진드기 >

- SFTS는 예방백신과 SFTS 치료제가 없어 농작업·등산 등 야외활동 시 진드기에 물리지 않도록 주의하는 것이 최선의 예방법이다.
- 특히, SFTS 감염자 중에는 50대 이상의 농업 및 임업 종사자의 비율이 높아 농촌지역 고연령층에서 주의가 필요하다.
- 야외활동 후 2주 이내에 고열(38-40도), 소화기증상(오심, 구토, 설사 등)이 있을 경우 즉시 의료기관을 방문하여 진료를 받아야 한다.
- 또한, 의료인들은 SFTS 발생 시기인 4~11월 사이에 고열(38-40℃), 소화기증상(오심, 구토, 설사 등) 등으로 의료기관을 방문하는 환자에게는 야외활동 여부를 확인하여 SFTS 진단이 신속히 이루어지도록 유의하고, 심폐소생술이나 기도삽관술이 필요한 중증환자 시술 시에는 2차 감염에 주의해야 한다.

< 진드기 매개질환 예방수칙 및 주의사항 >

- **작업 및 야외활동 전**
 - 작업복과 일상복은 구분하여 입기
 - 작업 시에는 소매를 단단히 여미고 바지는 양말 안으로 집어넣기
 - 진드기피제 사용이 도움이 될 수 있음
- **작업 및 야외(진드기가 많이 서식하는 풀밭 등)활동 시**
 - 풀밭 위에 옷을 벗어두거나 눕지 않기
 - 돛자리를 펴서 앉고, 사용한 돛자리는 세척하여 햇볕에 말리기
 - 풀밭에서 용변 보지 않기
 - 등산로를 벗어난 산길 다니지 않기
 - 진드기가 붙어 있을 수 있는 야생동물과 접촉하지 않기
- **작업 및 야외활동 후**
 - 옷을 털고, 반드시 세탁하기
 - 즉시 목욕하고, 옷 갈아입기
 - 머리카락, 귀 주변, 팔 아래, 허리, 무릎 뒤, 다리 사이 등에 진드기가 붙어 있지 않은지 꼼꼼히 확인하기
 - 진드기에 물린 것이 확인되면 바로 제거하지 말고 의료기관 방문
 - 2주 이내에 고열, 오심, 구토, 설사 등의 증상 있을 경우 진료받기

- <붙임> 1. SFTS 개요**
2. SFTS 발생현황
 3. SFTS 관련 질의응답
 4. SFTS 예방 홍보 포스터
 5. SFTS 예방 홍보 리플릿

붙임 1 SFTS 개요

구 분	내 용
방역이력 및 발생현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법정감염병(제4군)-2013년 지정 ICD-10 A98.8 ▫ 참진드기 활동이 활발한 4-11월 사이에 환자 발생 ▫ 국내에서는 2013년 5월 최초 사례가 확인되었으며 '17년 현재 총 607명의 환자 발생 ('17년은 잠정통계)
병원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SFTS 원인바이러스(SFTS virus, Bunyaviridae family)
감염경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로 SFTSV에 감염된 진드기에 물려서 감염, 환자 혈액 및 체액에 대한 직접적 노출에 따른 전파 가능성 존재 ▫ 주요 매개체 : 작은소피참진드기(<i>Haemaphysalis longicornis</i>)
잠 복 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6-14일
주요증상 및 임상경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38℃ 이상의 고열과 위장관계 증상(오심·구토, 설사, 식욕부진 등)이 주증상임 ▫ 출혈성 소인, 다발성장기부전 및 사망에 이르기도 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혈소판·백혈구 감소에 따른 출혈성 소인(혈뇨, 혈변 등) 발생 - 피로감, 근육통, 말어눌·경련·의식저하와 같은 신경학적 증상 동반 - 다발성장기부전 동반 가능 ▫ 주요 검사소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백혈구 및 혈소판 감소 - 혈청효소 이상 : AST, ALT, LDH, CK 상승
진 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환자 검체(혈액 등)에서 바이러스 분리 또는 유전자 검출 ▫ 혈청학적 진단 : 급성기에 비해 회복기의 IgG 항체가 4배 이상 증가
치 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증상에 따른 대증요법
환자 관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환자격리 : 필요없음, 중증의 환자의 경우 의료종사자는 혈액 및 체액 노출 주의 * 직접적 감염환자 혈액 노출에 따른 전파 의심 사례 보고, 의료진은 혈액접촉감염 예방원칙 준수 ▫ 접촉자격리 : 필요없음
예 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진드기에 물리지 않도록 주의 ▫ 야외활동 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풀밭 위에 옷을 벗어두지 않기, 눕지 않기 - 돛자리 사용, 사용 후 세척하고 햇볕에 말리기 - 풀밭에서 용변 보지 않기 - 일상복과 작업복을 구분하여 입기 ▫ 야외활동 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옷을 털고 세탁하기, 샤워·목욕하기 - 몸에 진드기가 붙어 있는지 꼼꼼히 확인하기

* 세계보건기구(WHO)는 2017년 연구·개발에 집중 투자해야 하는 질병으로 SFTS를 선정 (Annual review of the list of priority disease for the WHO R&D Blueprint, 2017)

붙임 2 SFTS 발생현황

1. 연도별·월별 환자 발생현황/사망자수

연도	월별 환자 발생수													사망 자수
	계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계	610	0	1	0	7	41	68	100	93	112	173	15	0	127
2013	36	0	0	0	0	7	4	10	6	2	5	2	0	17
2014	55	0	0	0	1	2	7	11	9	11	12	2	0	16
2015	79	0	0	0	0	7	10	16	13	16	15	2	0	21
2016	165	0	1	0	3	10	13	18	18	34	62	6	0	19
2017*	272	0	0	0	0	15	34	45	47	49	79	3	0	54
2018*	3	0	0	0	3									1

2. 연령별 환자 발생수

연도	연령별 환자 발생수								
	계	10세미만	10-19세	20-29세	30-39세	40-49세	50-59세	60-69세	70세이상
계	610	0	4	15	12	33	133	161	256
2013	36	0	0	1	0	1	6	11	17
2014	55	0	0	4	1	4	12	14	20
2015	79	0	2	4	3	5	11	17	37
2016	165	0	0	3	2	10	38	41	71
2017*	272	0	2	2	5	10	65	77	111
2018*	3	0	0	0	0	1	1	1	0

3. 시도별 환자 발생수

연도	시도별 환자 발생수																	
	계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세종
계	610	30	5	20	12	3	8	8	99	90	25	49	15	42	98	51	53	2
2013	36	0	1	5	1	0	0	2	0	3	0	2	0	5	6	5	6	0
2014	55	5	0	1	0	0	0	0	8	4	2	2	0	1	19	5	7	1
2015	79	0	0	5	4	0	2	2	7	15	0	5	2	9	9	10	9	0
2016	165	16	1	4	3	1	2	0	28	29	11	9	3	9	25	15	8	1
2017*	272	9	3	5	4	2	4	4	56	39	12	30	10	18	39	16	21	0
2018*	3	0	0	0	0	0	0	0	0	0	0	1	0	0	0	0	2	0

* 2017, 2018년은 잠정통계

붙임 3 SFTS 관련 질의응답

1. 중증열성혈소판감소증후군(SFTS)은 어떤 질병입니까?

- SFTS 바이러스 감염에 의해 발생하며 발열, 소화기 증상과 함께 백혈구·혈소판 감소 소견을 보이고, 일부 사례에서는 중증으로 진행되어 사망에 이르기도 합니다.

2. SFTS 바이러스는 어떻게 감염됩니까?

- 주로 야외활동(등산, 봄나물채취 등)에서 반복적으로 진드기에 노출될 경우, 바이러스를 보유하고 있는 진드기에 물려 감염이 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다만, 중국과 우리나라에서 일부 의료진이 환자의 혈액 등에 직접적으로 노출되어 2차 감염된 것으로 추정되는 사례가 있어 환자와 접촉 시 주의가 필요합니다.

3. 중증열성혈소판감소증후군(SFTS)에 걸리면 어떤 증상이 있나요?

- 원인불명의 발열, 소화기증상(식욕저하, 구역, 구토, 설사, 복통)이 주 증상입니다. 이와 함께 두통, 근육통, 신경증상(의식장애, 경련, 혼수), 림프절 종창, 출혈이 동반될 수 있습니다.

4. 진드기에 물리면 무조건 감염되나요?

- 진드기에 물린다고 해서 모두 감염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현재 국내에 서식하는 참진드기중 극히 일부만 SFTS 바이러스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물린다고 해도 대부분의 경우에는 SFTS에 걸리지 않습니다. 하지만 진드기에 물린 뒤 6-14일(잠복기) 이내에 고열과 함께 구토, 설사 같은 소화기 증상이 동반된다면 가까운 의료기관에 방문하셔서 진료를 받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5. 중증열성혈소판감소증후군(SFTS), 어떻게 예방해야 할까요?

- 진드기에 물리지 않도록 예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진드기의 활동이 왕성한 4월에서 10월 사이에 특히 주의하여야 합니다. 풀숲이나 덩굴 등 진드기가 많이 서식하는 장소에 들어갈 경우에는 긴 소매, 긴 바지, 다리를 완전히 덮는 신발을 착용하여 피부 노출을 최소화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야외활동 후 진드기에 물리지 않았는지 꼭 확인 하고, 옷을 꼼꼼히 털고, 외출 후 목욕이나 샤워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 야외활동 시 기피제를 사용하는 경우 일부 도움이 될 수 있으나, 피부 노출을 최소화하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6. 진드기에 물린 후 어떻게 해야 할까요?

- 진드기의 대부분은 인간과 동물에 부착하면 피부에 단단히 고정되어 장시간(수일~수주 간) 흡혈합니다. 손으로 무리하게 당기면 진드기의 일부가 피부에 남아 있을 수 있으므로 핀셋 등으로 깔끔히 제거하고, 해당 부위를 소독하는 것이 좋으며, 필요시 가까운 의료기관을 방문하여 치료를 받는 것이 좋습니다.

7. 환자와 접촉 시 주의사항이 있습니까?

- 공기나 비말 등으로 전염되지 않기 때문에 같은 병실에 머무를 때 특별한 제약이 있지 않고, 별도 병실에 격리할 필요도 없습니다. 다만, 중국과 우리나라에서 감염환자의 혈액과 체액에 직접 노출되어 감염된 것으로 추정되는 사례가 있으므로, 의료진의 경우 환자와 직접적으로 접촉할 시 보호장구를 착용하고, 혈액접촉감염예방원칙을 준수해야 합니다.

붙임 4 SFTS 예방 홍보 포스터



1. 어떻게 예방할까요?

진드기 접촉 피하기

- 밝은 색 긴 옷 착용
- 돗자리, 기피제 사용

접촉 진드기 제거

- 귀가 즉시 세탁 및 목욕

조기 진단·적기 치료

- 증상 발생 시 즉시 의료기관 방문하여 진료



2. 어떤 증상이 나타나나요?

조기진단 - 적기치료가 중요합니다.

- 고열과 오심, 구토, 설사, 식욕부진 등 **소화기 증상**
- 피로감, 근육통, 오한, 기침, 가래 등



3. 어디서, 무엇을 할 때 위험한가요?

물이 있는 모든 곳

산 인근 농경지(논, 밭), 산(숲), 공원 등

야외활동(등산, 여행 등) 시, 임산물 채취, 농작업 등



4. 진드기 매개감염병이란?

중증열성혈소판감소증후군(SFTS), 라임병, 쯤쯤가무시증

세균 또는 바이러스를 가지고 있는 진드기가 몸에 기생하면 물론나 야생동물 대신에 무연히 사람 몸에 붙어 우리의 신체를 통해서 발생하는 질환입니다.



발행일 2018. 9. 28

<중증열성혈소판감소증후군 예방수칙>

붙임 5 SFTS 예방 홍보 리플릿

☉ 예방 및 관리수칙

활동 전



진드기 노출 최소화
밝은 색 긴 옷 착용

활동 후



점속 진드기 제거
귀가 즉시 세탁 및 목욕

활동 중



진드기 접촉 피하기
휴식 시 돛자리, 주걱적 기피제 사용



진드기 기피제 효과 지속 시간

대부분 4시간 이내
사용설명서의 사용방법 및 주의사항 지키기

☉ 묻고 답하기

Q 진드기에 물리면 무조건 감염되나요?

A 진드기에 물린다는 것과 중증열성혈소판감소증후군(SFTS)에 감염된다는 것을 동일시 할 필요는 없습니다. 질병관리본부에서 실시한 전국 진드기 채집 조사 결과에 따르면 SFTS 바이러스를 보유하고 있는 진드기는 0.6%의 최소 양상율을 보며, 일부 진드기가 SFTS 바이러스에 감염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Q 진드기에 물린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증상은 없지만 중증열성혈소판감소증후군(SFTS)에 감염되었을지 검사해도 될까요?

A 진드기에 물렸다고 다 감염되는 것은 아닙니다. 증상이 나타나기 전에는 검사를 하여도 감염 여부가 확인 되지 않습니다. 진드기에 물린 것을 확인하였을 때에는 진드기 제거법에 따라 진드기를 제거하고 해당 부위를 소독합니다. 이후 21일 동안 임상 증상이 나타나는지 주의 깊게 관찰합니다. 임상 증상이 나타나면 즉시 의료기관을 방문하여 진료를 받으셔야 합니다.



<진드기 제거법>

예방 및 관리수칙

진드기 접촉 피하기, 진드기 제거, 조기 진단·적기 치료 잘 지킨다면 충분히 예방할 수 있습니다.





중증열성혈소판감소증후군 SFTS





질병관리본부
KCDC

발행일 2018. 4. 23

<중증열성혈소판감소증후군 예방수칙>